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교회

이사야 59:9-21, 디모데후서 3:14-17

최정웅 목사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선배와 후배 두 사람을 알고 있다. 이들은 목사님이었다. 선배 목사님이 고백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가더니 운동권 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오더니, “아빠는 몰라요.” 그러더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던지. 경찰은 계속 뒤따르며 잡으러 다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후배의 아이는 공부를 잘 했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겠노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을 쳐서 서울대 문과에 1등으로 합격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도 했다. 그런데 간지 1년도 안 되어서 아버지한테 그러더라는 것이다. “아빠, 제 길로 갈래요.” “무슨 길인데?” “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개똥철학이 들어가 버렸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유학을 갔다가,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했다. 자랑을 많이 하던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는 낙담해서 말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주제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당연히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자란다. 요14:30에 무슨 말씀이 있나?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요16:11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요16:33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는, 세 가지 종교와 사상, 뉴 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유대 사상이 세상을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사단 문화로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달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도 같은 심정이다. 장로 자녀로 태어나고 목사 자녀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만나면 흡수되어 버린다. 복음 문화로 그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 버린다. 개똥철학에, 자유주의에, 사회주의와 사상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어떤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을 봤지 않나? 내가 그 아버지를 잘 안다. 아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주제를 다시 정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교역자들이 노력했는데, ‘아니다. 전달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후대에게 언약을 아예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각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다. 새긴다는 말이다. 아주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아예 새겨 버려야 한다.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가. 남자들에게만 하는데, 남자아이의 성기 끝을 자르는 것이다.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섭섭한 것도 토라질 것도 돌아설 것도 없다.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섭섭하고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각인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왜 저렇게 반복하지? 우리가 명칭이인 줄 아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어 있는 것이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종교생활 하면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세계복음화라는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성경적인 전도방법으로 갈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한 번 뿐인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세계 교회가 후대를 지금 놓치고 있다. 주일학교가 감소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후대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는지, 트위터에 선생님이 글을 올렸다. “인간의 본성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초등학생들을 보니까 성악설이다.” 아무리 봐도 성악설이라는 것이다. 겨우 초등 학교에 온 아이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이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 버린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시대 살릴 램넌트로 불러 주시고, 우리 후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제대로 이 언약을 그들에게 새겨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다짐해야 되겠다. 한 번도 응답받은 것을 못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여주고, 정말 아빠엄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못 보여주면 새겨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후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언약을 아예 새겨 넣는 응답을 받는 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와 지식을 이기고, 우리 후대가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실 한 사람 요셉이 애굽을 다 살렸다. 중세에 한 사람 루터가 있는데 세계가 변했다.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후대를, 램넌트를 키워내려면, 아로새기는 길밖에 없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아로새기는 데 힘을 기울여 보자.

1.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할 언약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할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

(1) 후대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로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아예 새겨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니, 목사님, 내 문제는 하나도 안 끝났는데요? 더 꼬입니다.” 내게 복음이 체험되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아서, 그 답이 아직도 머리에서 땀뭍고 있어서, 가슴에만 땀뭍고 있어서, 내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침투되지 않아서, 각인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우리 후대 램넌트들에게 반드시 새겨져야 되겠다. 우리가 확신시켜야 될 언약은, 다시 말씀드린다. 사도행전 1:1이다. 계속 외치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내가 오늘 1월호 기도수첩을 가지고 나왔다. 딱 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멕시코 티후아나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가 여기에 가 보았다. 마약환자들이 득실거린다.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곳이다. 거기는 천주교인들이,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복음화를 끝냈다’고 선언한 곳이다. 그러나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았다. 가보면 성향당 종교가 되어 있다. 나무 밑에 오만 것들을 다 달아 놓았다. 거기에 가서 절하고 비는 짓을 한다. 한 청년이 거기에 불신자 때 간 것이다. 돌아와서 LA에서 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왔는데 너무 큰 충격이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 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7년이 지난 후 다시 티후아나에 가게 되었다. 가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다락방이 생기고, 미션 홈이 생기고, 지교회 생키면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우리 교회를 써라 하면서 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머지않아 미국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이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멕시코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계속 와서 퍼주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다. 학교를 세워 줘도 안 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들의 영적 문제가 끝나더라는 것이다. 마약 문제가 끝나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 말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체험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에만 각인된다. 부모가 못 보여주면 교역자가, 중직자가, 선생님이 보여주어야 한다. 인생을 복음 앞에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근본 언약을 각인시키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행5:42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른 말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 말을 계속 하는 분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미션 홈 자격증을 세계에서 1번으로 받았다. “서울에서 한 번 만나십시오.” 그래서 미션 홈을 제일 처음으로 받은 다섯 명-그 중에 최복순 전도사님도 있었는데-이 함께 가서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이 유숙하는 곳에 갔다. 사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다. 내가 8년 선배인데 말이다. 들어갔는데, 화이트보드를 내놓더니, 우리가 미션 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제자를 확립시키고 치유를 할 것이냐 하면서, 행1:1,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다른 말을 할 것 없다. 이것을 말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다. 행1:3,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미션 홈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충만 받아야만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만이 가정이 치유되고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았었다. 내가 선교사훈련원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스페인 선교사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목사님, 잠깐 뵙시다. 목사님, 제가 2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듣고 빨리 가야 하는데, 왜 그 말만 계속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그때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임이 내 영혼으로 정말 확인되는 시간이 있었는가. 그 이름 불렀는데 정말 내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머물러 있다. 그래서 빠지고 토라지고 다투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근본 언약이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되어야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2) 우리가 각인시켜야 할 언약은 행1:3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체험해도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영적 사실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우리 램넌트들이 군대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외로운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달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해 달라고, 왜 계속 반복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후대에게 새겨 주어야 한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치시 말고 각인시켜라. 우리가 스스로

그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3) 세 번째 각인시켜야 할 언약이 행:1:80이다. 우리 램넛들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직장에 가서 술 한 잔 먹으면 무너져 버린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어지는, 그 문제를 넘어서 만큼 각인된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딤후3:14-17에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힘이 필요하다. 흑암 조직은 이것을 두고 귀신 체합을 계속 해서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시대에 램넛가 살아남고 정복하는 중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응답을 시간마다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각인되어서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램넛가 일어나면 문제는 없어져 버린다. 이때 전도가 되어지는 체합이, 어린 시절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램넛는 영원히 이 복음운동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램넛를 담당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이것을 못 봤다. 삶에서 전도가 체험되는 각인이 되어질 만큼, 성령충만의 해답과 전도에 대한 실천을 각인시켜야만 하겠다. 이제 가치를 정말 각인시켜야 하겠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삶에서 통치하고 계신지 확인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성령충만을 통해서 악령과 싸워 승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 이유가 없다. 일본 같은 나라를 가 보면, 아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가 전부 귀신과 같이 노는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정신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2. 어떻게 언약을 각인시킬 것인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언약을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15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언약 각인의 방법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다. 어떤 각인인가? 각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새긴다는 말이다. 비석에 문자를 새기고 도장에 문자를 새기듯이 새기는 것이다.

(1) 새길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중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이다.

① 여러분, 약하다 약한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가 뚫어진다. 그래서 램넛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집중의 날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이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먼저 받고, 아이들이 이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각인된 후에 사회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각인되기 전에 나가니까 판관이 지는 것이다. 이 시대가 너무 약하지 않다. 그래서 집중을 위한 훈련에 올-인 해야 한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과, 우리 참사랑 교우들이 다시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왜 우리가 더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한다. 아이에게 완전히 각인 되었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전부 각인되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안 하면서 아이보고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어미게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보고는 앞으로 걸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기가 계속 굴뚝에 불 때면서 '너는 때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되어야 한다.

②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 체질이 되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테필림을 하듯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가족이 다 같이 반복해야 한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매일 잠을 한 장씩 읽었는데, 아이들이 변했다고 하더라. 사59:21에,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너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각인의 길이 이것이다. 선생님과 함께 정시기도를 반복하시기 바란다. 시간을 내서 전도 현장을 계속 밟게 되시기를 바란다. 기도의 단을 반복해서 쌓아야 한다.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말이 아니다. 습관을 만들라는 말이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무리해서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심, 전심, 지극에서만 오는 것이다. 이것이 집중과 반복이다.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이런 실천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날이 온다.

(2) 어느 정도 되어야 각인이 되어지는가? 그리스도가 사상화될 때까지. 복음이 사실화될 때까지. 오직 복음이 체질화될 때까지 해야 한다. 사상화, 사실화, 체질화 될 때까지다. 힘든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각인시킬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지치면 절대 각인을 못 시킨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북한 사람들을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진짜 울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탈북자들의 말이, 탁아소에 있을 때부터 김일성의 이름으로 빵을 주고 고기를 주고 사랑을 준다고 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웃음) 그런 식으로 각인을 계속 시키니까 그분이 죽었다 하니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것이다.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램넛에게 바른 사상이 각인되어야 세상 철학과 사상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 않나. 이 사상화가 사실화와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종교화가 되어 버린다. 결국 불신 현장의 문화와 과학과 종교를 못 이기게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 속에서 적용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바로 무릎 꿇는 체질이 되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서, 우리 램넛들이 전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응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각인될 수 있다. 새해에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후대에 각인시키는 최고의 응답을 모든 성도들이 받는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3.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 재창조의 시대를 열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1) 세계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세상이 계속해서 흑암 문화, 흑암 종교,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사회가 이렇게 흑암에 장악되고 타락하게 되고 퇴폐하게 되면 재앙이 결국 들어닥친다. 이런 내리막의 흐름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었고, 이탈리아 교황 보니파이스의 최후의 날들이 있었다. 역사에 얼마든지 그런 날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막고, 이 흐름의 방향, 물줄기를 돌려놓아야 한다. 이런 램넛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딤후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문화와 종교와 경제의 모든 시스템을 복음으로 돌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것을 막을 수 있다.

(2) 복음으로 각인된 램넛가 일어나서 주역이 되면 지역의 문화도 바꿀 수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램넛들이 훌륭한 도전을 했다. 올해는 이것을 두고 전문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더 큰 도전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램넛들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도록,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자. 램넛가 교회의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어른들이 못 하는 일을 램넛가 하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 예배에 나오다가 내가 봉투를 하나 받았다. 램넛가 오더니 그러다. "목사님,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지만, 우리 교회 현당에 밀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었다. 반기에 두려운 돈이었다.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다 가져왔느냐" 여러분, 같이 도전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

(3) 이 지역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가 서밋으로 키워지는 종합적인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문화에 대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문화교실도 세우고 색소폰 교실에 나도 신청했는데, 배울 날만 되면 꼭 나를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두 차레나 빼졌더니 큰일이다. 진도가 많이 나갔을 텐데, (웃음)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문화교실도, 공부방도 만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참사랑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램넛들이 좋은 대학도 가야 한다. 지리리 공부도 못해서 시험만 치면 꼴찌 수준이면 전도하기 힘들다. 우리 교인들이 왜 좋은 식당 하나 안 하는지 안타깝기도 하다. 지역을 경제적으로 장악해야 하는데, 램넛들이 힘내시기 바란다. 음식문화로도 가능하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그것도 복음 증거의 좋은 발판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만큼 서밋 운동의 그릇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참사랑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내리겠다.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일제 때 모든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를 이야기 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하나님만 내 생명. 한 번 뿐인 내 인생을 우상과 사단 세력 앞에서 타협할 수 없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렇게 자기 생을 바쳤는데, 이 영적 싸움과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상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싸움도 이 일사각오의 싸움이다. 마귀가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대다. 우상이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아하려고 몰려오고 있는 시대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 이 나라를 사단에게, 우리 후대를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 2015년에 일심으로 일어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이 되어, 내가 먼저 각인되는 체험을 하고, 이것을 후대에 각인시켜서, 자손만대에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자, 이제는 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는 각인전쟁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복음소식 암송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램넛들도, 장로님들도 승리하시기 바란다. 중요 요절이 77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암송해서,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조금만 거룩하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오는데,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면 어느 날 말할 기회가 오니까, 그때는 운운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키는 전쟁에 들어간다는 선포식을 하면서 새해를 맞기를 바란다. 가서 싸우면 판관이 지는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골리앗을 돌팔매로 때려잡는 다윗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달되지 않는구나,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구나, 세상 풍조에 밀려가 버리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참사랑교회가 복음운동의 선두주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각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램넛를 키우는 모든 엄마아빠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에게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각인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